

광주역,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 된다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2025년까지 민자 등 1조2000억원
경제기반형 뉴딜·복합개발 추진
인공지능·친환경 모빌리티·5G 등
그린-디지털 스타트업 집중 육성



“광주의 실리콘밸리... 창업은 여기서” 21일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광주역에 기차들이 정차해 있다. 광주역 일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돼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경제발전의 아픈 손가락인 광주역 일대가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미국 실리콘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경제공간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주도로 오는 2025년까지 민간투자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집중 투입해 ‘창업=광주역’이라는 창업공식을 만들어 내는 게 핵심 목표다.

〈관련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광주역’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2018년부터 광주역을 창의문화산업 신경제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해 온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복합개발 사업 등 3대 메가사업이 맞물려 2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만6000여 명의 일자리가 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광주역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도심재개발사업은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와 광주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50만 광주 시민의 새로운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이고 담대한 사업”이라며 “구도심과 신도시 지역간 균형 발전은 물론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의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역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는 그린, 디지털,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혁신기업을 집중화해 광주역을 산업·문화·주거 등이 결합된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광주역 후면 1만4000㎡(4235평) 부지에 총

사업비 1688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미래 핵심 산업 육성과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광주역 일원에 광우형 창업생태계를 집적하고, 정부 그린-디지털 신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지역 주력산업인 인공지능(AI), 친환경 에너지·모빌리티, 5G-ICT(디지털)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선정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이 어우러지면, 호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간투자 여부가 이번 사업 성공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시가 이 기간동안 예상하는 총 투자사업비는

총 1조2000억원인데, 이 중 7493억원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교통·상업·산업 주거 등이 복합된 역세권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창업 생태계를 보면 초기창업 열기는 타지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데, 이후 지원시스템이 열악하다보니 3년 이상 생존 비율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이번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은 지역 내 창업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창업하면 광주’라는 이미지 구축과 함께 성공 스토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계엄군 사망자 ‘전사자’→‘순직자’로 바뀐다

군 문서 ‘폭도’ 표기 모두 삭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戰死者)에서 ‘순직자’로 바뀐다. 군 내부 문서에 희생자를 ‘폭도’라고 표기했던 부분도 모두 삭제된다. 1980년 당시 광주에서 숨진 군인을 전사자로 표현한 것은 광주 시민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한 것이라는 점에서 ‘순직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21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망자 22인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22일 변경하고, 군 내부 문서의 ‘폭도’라고 표기된 부분 역시 모두 삭제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

용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광주에서 사망한 계엄군은 총 23명이며 이 중 1명은 이미 순직 처리됐다. 이번 조치로 22인의 전사자들이 ‘순직 2형’으로 전원 변경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폭도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18인과 ‘폭도들의 칼’에 의해 사망한 1인, 오인사적으로 사망한 3인을 모두 전사자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를 통해 폭도라는 용어는 모두 삭제되며 왜곡된 개별 사망 경위도 모두 정정된다. 구체적으로 계엄군 상호 오인사적 사망 13인, 시민 교전 중 사망 5인, 차량에 의한 사망 2인, 원인불상 총격사망 1인, 원인불상 사망 1인으로 정정된다.

그동안 폭도와 전사자 기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양 의원은 “당시

같은 경위로 사망한 경찰들은 순직 처리됐지만 아직도 계엄군의 경우 ‘대첩투작전’ 간 전사자로 기록되어 있고, 현충원 묘비에도 이분들은 광주에서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민행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도 지난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전쟁이 아닌데, 사망자들이 ‘전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80년 5월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자 가치체계의 문제”라며 “순직자와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훈처와 국방부가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김정운



유현준



양정무



김대식



강신주

고수들의 명 강연...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9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내년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9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 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 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1년 3월-2021년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호텔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1년 2월 19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63

光州日報社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내일부터 ▶2면

굿모닝 예향 ▶18-19면

김세영 ‘올해의 선수’
고진영 ‘상금왕’ ▶22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